



조선대 '로즈기든' 조선대가 지난 2003년부터 개장, 운영하고 있는 정미원에 정미가 만발했다.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6회 정미축제'에는 조선대의 미래 비전을 밝히는 '프라이드 조선(Pride Chosun)' 선포식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조선대 정미원에는 152종 1만4천306주의 정미가 심어져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5월 광주선언문 美 쇠고기 포함

5·18 행사위 확정

우리 사회의 당면 현안에 대한 입장표명과 '5월 광주'가 앞장 서 풀어가야 할 과제를 담은 '2008년 5월 광주선언'을 준비 중인 '5·18민중항쟁 28주년 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가 14일 마라톤 회의 끝에 선언문에 담길 내용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5·7면>

행사위는 이날 행사위에 참여한 10개 단체와 5·18 단체 관계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낮 12시부터 5시간에 걸쳐 두 차례 연석회의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대운하 및 공기업 민영화 등 국민 불신을 초래한 정부 정책 ▲5·18 기념사업 예산 삭감 등 3대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선언문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또 당초 행사위가 마련한 선언문 초안(본보 12일자 1면 참조)의 내용과 현안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 토론을 벌인 끝에 일부 표현을 가다듬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대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이와는 별도로 '이명박 대통령 광주 방문과 관련한 입장표명'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운과 실용만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가며 강대국의 간섭과 굴욕적인 사대외교로 국가 주권을 흔들고 남북 화해를 통해 무르익던 통일의 염원이 전 쟁과 대결로 바뀌고 있는 현실' 등에 대해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쪽과 선언문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으나 결국 행사위 차원의 입장표명은 하지 않기로 했다.

행사위에는 시민사회·여성·농민·노동·종교 등 여러분야의 단체들이 참석하고 있어 단체마다 현실 인식과 비판의 강도가 다른만큼 이를 한데 모으기는 힘들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대신 각 단체별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자중에 맡기로 했다.

선언문은 '5월 광주선언에 함께 하는 광주시민과 국민'의 이름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 금남로에서 열리는 '5·18 민중항쟁 28주년 기념 정신승 국민대회' 때 발표될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5·18 단체,李大統領 기념식 참석 요청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이 최근 청와대에 이명박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을 공식 요청했다.

윤광장 5·18 기념재단 이사장은 14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부

상사회 등 5월 단체와 협의해 1주일 전 청와대 비서실에 이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균형발전위 사실상 폐지

혁신도시 등 지방정책 후퇴 예고

광주·전남 발전 전략 차질 우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가 설립 5년 만에 사실상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다가 잡히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기업도시 조성 등 지방발전 정책의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혁신·기업도시 조성 등을 기반으로 그동안의 경제적 낙후를 벗고 새로운 도약을 추진했던 광주·전남의 발전 전략도 상당 부분 차질

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청와대와 균발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균발위의 명칭을 '지역발전위원회'로 바꾸고 균형발전사업의 정책 목표와 인적 구성 등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 정부가 혁신·기업·행복도시 등을 기반으로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을 '5+2 광역경제권' 및 'SUN 벨트 경제권' 위주로 전환시킨

다는 것이다.

이미 균발위는 이들 광역경제권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등 본격적인 정책 수정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 하반기 균발위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법령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균발위 조직 규모도 대폭 축소되고 있다. 홍보기획팀 등이 폐지되면서 내부적으로 이미 30~40% 가량의 인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움직임은 사실상 균발위의 폐지와 기업·혁신도시 조성 계획의 수정으로 해석돼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올해 초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균발위를 존속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기업·혁신도시 조성 등 참여정부가 제시한 정책과 일정이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도 배치되고 있다.

균발위 고위 관계자는 "인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균발위의 명칭 등을 바꾸고 특별법 개정하는 것은 여러가지 검토 방안 가운데 하나"라며 "당장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조직을 효율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균발위의

폐지로 보는 것은 오해"라며 "광역경제권 계획을 균발위에서 다루는 것은 보다 효율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견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새 정부 중심 정책이 지방을 포기한 듯한 인상이 짙다"며 "수도권 규제를 했을 때도 격차가 벌어졌는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유일한 법적 장치인 균발위마저 폐지 또는 축소되면 지방이 붕괴될 가능성은 그만큼 높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따라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국민통합 저해 등 많은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7일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위원장에 내정한 데 이어 위촉직 위원 15명을 전면 교체한 결과를 이르면 내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쇠고기 고시' 10일 연기

野,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농림수산물부가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에 대한 장관 고시를 연기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이를 '여론마용 물타기'로 규정, 즉각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3·4·8면>

정운천 농림수산물부장관은 14일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 출석,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7~10일 정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장관 고시가 연기된 이유에 대해 "국민의 이의 신청 의견이 현재 334건 접수됐는데 이 내용을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7일에

서 1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고시 연기가 실무적인 이유일 뿐, 수입위생조건 협정문의 수정작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에 대한 장관 고시는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정부 특별점검단의 현지 실사가 끝나는 오는 25일께 강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무효화하기 위해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15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열어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중국 지진 사망·매몰·실종자

10만 명 넘어설 듯

중국 쓰촨성 원촨현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와 매몰 및 실종자 숫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면서 14일 오후 현재 1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관련기사 6면>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언론은 14일 관리들의 말을 인용, 진앙지인 원

촨현에서 주민 50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체 사망자가 1만9천565명으로 거의 2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부상자가 4만여 명, 피해가옥이 350만 채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원촨현의 경우 주민 7만여 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다, 맨양과 더양의 매몰자 수가 각각 1만8천690여 명과 7천800여명으로 파악되는 등 이번 지진과 관련된 사망 및 매몰·실종자는 모두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은 헬리콥터와 낙하산부대를 동원하는 등 군사작전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10만명의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을 지진 피해현장에 긴급 투입하는 등 생존자 구조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



www.jpca.com

고객님이 거래하시는 Advisor는
Total Financial Advisor입니까?

이것도 할 회사라고만
고객님의 자산관리를 하시나요?

이제 종합자산관리서비스는
A 에셋에서
One stop 으로

JPCA LIFE AIG 생명보험 삼성증권 신한생명 메일리프 현대캐피탈

A 에셋 3부총괄 TFA (Total Financial Advisor) 도입된다

- 영업 시간: TFA 10:00 / 5:00 (주말/공휴일 휴무)
- 시작일: 2008년 5월 23일 (금) 10:00시
- 주요 업무: 20여개 증권·보험·신탁·연금 등 4대 주요 금융 상품에 대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 자격 요건: 1. 10년 이상 증권사 경력 2. 10년 이상 증권사 3년 이상 근무
- 문의 전화: 062-611-8888 (주선) 062-611-8889 (상담)
- 상담처: 062-611-8888 (주선) 062-611-8889 (상담)
- 상담처: 062-611-8888 (주선) 062-611-8889 (상담)
- 상담처: 062-611-8888 (주선) 062-611-8889 (상담)
- 상담처: 062-611-8888 (주선) 062-611-8889 (상담)

JPCA A 에셋